



## 2018 사순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우리는 다시 한번 “은총과 구원의 시기”인 사순을 시작합니다. 사순은 부활의 기쁨을 살 수 있기 위하여 회개로 부름받은 우리가 거쳐가는 길입니다.

사순은 무엇보다 자비의 때입니다. 평화, 정의, 그리고 모든 이들의 권리를 추구하는 때입니다. 하느님을 신뢰하고 연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때입니다. 광야로 들어가 유혹을 대면하고 하느님 말씀이 싹트게 하기 위한 때입니다.

사순은 걷는 때이고, 첫 사랑으로 돌아가는 때, 새로운 것을, 생겨나고 있는 것을 알아보는 때입니다. 희망의 때, 신뢰의 때이고, 밤이 지나면 언제나 새벽이 밝아온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아침이 있음을 확신하며 밤을 끌어안는 때입니다.

우리는 재의 예식으로 사순을 시작합니다. 이 예식은 최근에 생긴 것도 아니고 이천 년 전의 것도 아니며, 매우 오래 된 예식으로서 교회가 10 세기에 하느님의 구원에 다가가는 표지로 성사집에 포함시킨 예식입니다.

하지만 재나 단식이나 절제나 자선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이 주술적인 표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들이 우리로 하여금 나자렛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삶의 방식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이들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선이 연대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가 우리에게 성부와 당신의 결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팔레스티나의 길을 걸어 다니셨던 나자렛 예수님의 하느님과의 일치를 느끼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단식과 희생이 종교적 계율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연대성을 갖게 하는 검소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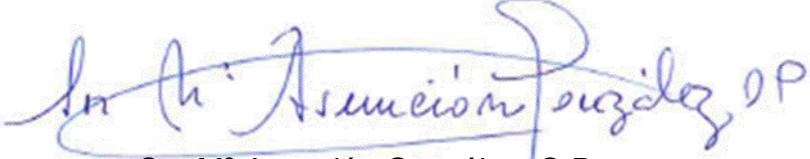
그리고, 우리의 길에 미소가 빛나고 있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 것도 아닌 채로 머물고 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느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아는 사람의 기쁨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돌보듯이 자신을 돌보는 하느님을 모신 백성이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쁜 소식의 힘을 믿는 사람들임을 보여 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순은 걸어갈 때이고 광야를 건너갈 때입니다. “지극히 먼 길은 한 걸음으로 시작됩니다.” 광야의 끝에는 예루살렘이, 십자가가 있고, 거기 골고타 곁의 무덤에서... 부활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걸어가기 시작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기쁜 부활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적인 포옹을 보냅니다.



Sor Mª Asunción González, O.P.  
Piora General